

정릉동 청각장애 청년일자리 존속과 영유아 동반 복합공간 제안

제안인: 유나영 (정릉 3 동 주민)

연락처: 010-9100-3247

작성일: 2026. 03. 17

1. 현황 (제안공간: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37 카페스윗)

2026 년 4 월 17 일 이 되면 정릉의 청각장애 청년의 일터인 ‘카페스윗’ 이 사라집니다.

임대인 신한은행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카페스윗 공간을 열었습니다.
2026 년 3 월 중순에 갑자기 카페 철수가 결정되었음을 카페 매니저 에게 통보 하였고, 3 월 17 일에 카페 철수를 고객에게 안내라고 확인 받게 됩니다.

카페 철수 통보와 동시에 사전 기간은 겨우 1 개월을 준 것입니다.

3 월 17 일 오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다급함이 있지만, 중요한 일로 느껴져 지체하지 않고 급한 사안이므로 주민 제안을 올립니다.

정릉동에는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는 상업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의 끼니를 걱정하여 시작된 ‘청년문간’ 과 청각장애 청년일터 ‘카페스윗’ 입니다. 이 두 곳은 정릉에 자리잡게 된 청년을 위한 사회적 가치가 높은 상업 생태공간 입니다.

이것은, 지역 상징성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청년 밸류업 그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카페스윗’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벽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톡톡해 왔고 영유아 동반 쉽터가 없는 정릉동에서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 휴식과 돌봄 공간으로 활용되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추가적 현황>

1. 신한은행의 갑작스런 결정통보는 카페 직원들에게는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대책이 바로 되지 않는 일 이었을 것입니다.

2. 고객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구매한 선불 구매 음료 쿠폰들을 갑자기 짧은 기간 안에 소진해야 하는 부당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4 월 17 일 이후에 찾아간 고객이 있다면 종이조각이 된 선불 구매 쿠폰은 쓸 수 없게 됩니다.

신한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취지에 걸맞는 마무리를 보여 주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대계획 철회도 최소 3 개월 전이라는 통상적인 준비 기간을 주는데, 적절한 준비기간 없이 갑작스런 카페 철수 통보는 카페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역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신한은행은 지금의 진행에 대해 되돌아 봐야하고, 오늘과 같은 무례함을 범하지 않도록 사회가 예의 주시 해야 합니다.

2. 문제점

첫번째는

‘카페스윗’ 이 사라진다는 것은 장애 청년들의 일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애 청년들은 직업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바리스타 일자리는 장애 청년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미세하게라도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릉동 주민들이 카페스윗 의 사용자가 되어 청각장애 청년들과 상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마을 가치입니다.

많은 카페에서 장애 청년 고용을 야심 차게 시작했다가 곧 실패를 경험합니다. 일반적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카페들이 장애 청년 고용을 기피하게 되어 청각장애 청년 바리스타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청각장애 청년 고용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고, 장애에 맞는 고용 관리 노하우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카페스윗’이 청각장애 청년 바리스타의 현장 적응력과 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잘 돕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청년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청인)들은 청각장애(농인)들이 수화와 구화로 다양한 현장과 상황에서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화는 청인들이 말하는 문장 구조와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청년들의 고용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상업 활동이 있다면, 가치를 매출액, 수치로만 평가 받을 것이 아니라 지역가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카페스윗’은 사실 카페공간 이지만 사회적기업 성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동하고
있던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어르신들의 더위대피소로 잘 쉬었다 가시고, 영유아 부모들에게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과 함께 어린 자녀와 안전하게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계절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정릉동에는 영유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쉴 공간이 없습니다.
벤엘교회에 미취학 유아를 위한 공간이 있지만, 그곳은 단체와 미취학 직전 나이
의 유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개인자격과 입장 기준 아래의 영유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용 정책이 바뀌어 영유아를 동반하여 부모가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유모차와 아이를 안고 엮고 가기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
있습니다.

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카페스윗 공간을 선호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1) 탁 트이고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며 카페가 주는 향, 소리, 조명, 적당한 온도
등의 쾌적한 환경 때문입니다.

2) 어린이들을 불편해 하는 다른 카페와 달리 영유아가 들어와 엄마 손을 잡고
공간 여기 저기를 걸음마 해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용해 주는
카페스윗의 개방성도 한 몫 했다 할 수 있습니다.

3) 나이 어린 영유아는 많은 놀이기구가 놓여 있기 보다 비어 있는 넓은 공간이
더 안전하고 유용하다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남겨 드리고, 카페스윗이 영유아
전용 공간이 아니어서 부족한것이 있지만 필요 충족을 시켜 주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 공간을 카페스윗 이 감당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 사라지고 상업 공간만 있다면 이 마을에서 영유아를 동반하여 갈 수
있는 피난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을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에게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있어야하며, 주거 밀집지역인 정릉동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타 상업공간으로 매매와 임대 예정인 카페스윗 공간을 자치구에서는 구민들의 필요 공간 확보로 판단하여 적극적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3. 개선방안

(1)지자체(성북구)에서 해당 건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 1) 1 층은 청각장애 청년일터 공간(카페스윗)으로 유지 운영.
- 2) 2 층은 영유아 복합공간으로 변화하여 운영.

정릉동에는 영유아 동반 부모의 휴식터가 필요하고, 더울 때 추울 때 잠시라고 쾌적한 쉼터가 필요하며, 청년을 위한 가치 사업이 모이는 정릉마을 상징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신한은행이 건물 매매와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기회 삼아 지자체가 마을에 필요한 공간 확보에 나서 주시길 소원합니다.

(2)정릉의 상징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지자체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치구 밸류업(Local Government Value-Up) 이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의미로 ‘기업 밸류업(Corporate Value-up)’ 개념을 자치구 사업에 적용해 본 정책명입니다.

청년문간, 카페스윗 등은 청년이 주제인 상업 공간들입니다. 이런 공간들이 가까이 모여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의 가치 발전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이들 가게는 성북구 정릉동, 주거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필요를 다양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타지역 지점들과 다른 모습으로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거론된 가게들은 현재 마을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고, 앞으로 정릉동에 청년 복지를 위한 상생 가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릉동의 상징적 거점 공간들이 지속 유지 발전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자치구 밸류업’ 사업을 정책화 하고, 정릉동의 청년 상생 사업장들이 지속 유지 발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기대효과

(1) 전세대가 필요로 하는 마을 복지, 한 건물에서 제공하는 효과

현 1~2 층과 루프탑이 있는 카페스윗 건물 확보는 편리한 접근성, 넓은 공간, 층마다 다른 활용이 용이합니다.

1 층은 청년일터로, 2 층은 영유아 부모들의 지친 육아의 쉼터 복합공간으로, 루프탑은 다양한 행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층은 어르신들이 쾌적한 쉼터로 활용하므로, 건물 하나가 전세대가 필요로 하는 복지를 제공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구절벽, 위기시대라고 하며 이것을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를 극복해 보고자 정부는 자녀양육의 두려움을 낮추는 사회, 경제적 자립이 용이한 사회, 노인이 일상을 보내기에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도 되고 있습니다.

정릉동에는 청년, 영육아, 여성, 고령자까지 전 세대를 위한 필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간이 눈 앞에 있습니다.

카페스윗의 철수 이후, 그 공간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요구 충족과 관계없는 상업 공간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간확보를 통해 전세대에 걸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주민 일상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2) 청년 가치 사업이 모이는 정릉동, 마을 상징성 확보

사회적 가치로 가장 주목할 것은 카페스윗의 존재가 청각장애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와 직업군의 확장에 명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종류가 늘어 난다는 것은 이전 세대와 다른 가능성과 삶의 질적 변화 경험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를 잘 하고 있는 성북구청이 청각장애 청년의 일터를 지켜 주다는 것은 변화하기 힘들었던 장애인 삶의 변화에 기여함을 의미합니다.

청년 가치 사업의 거점이 되는 정릉동과 정릉마을 상징성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마을 정신이 되고, 삶의 터전에 대한 자부심이 됩니다.

마을 정신과 터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정릉동은

청년과 상생하는 콘텐츠가 있는 마을로 시대가 거듭 될수록 진취적인 가능성을 품고 흐르는 청량한 청수처럼 새롭게 선량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3) 성북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

정릉동의 청년을 위한 선하고 좋은 상업 활동들은 지역 주민의 일상 속에 상생과 공존의 가치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놓았다가 주민들이 먹지 않는 보기 좋은 떡으로 남은 실패한 마을 사업들과 매우 다른 사례입니다.

카페스윗이 철수 되지 않고 정릉동에 유지 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지역 토양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정릉동에 뿌리내린 청년을 위한 상업 공간들은 인위적이지 않고 사람 사는 주거를 위협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지 정릉동, 상징성이 있는 소박한 마을은 인간애를 품으며 자연스럽고 건강한 마을 생태가 살아 유지하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선량한 이야기가 있는 마을 상생의 성북구 브랜드 가치(자치구 밸류업)의 성공 사례로 남게 될겁니다.

<참언>

정릉동 마을 발전은 남달랐으면 합니다.

지금의 청년을 위한 상업 공간들의 의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다른 마을들의 실패를 보면서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보기 좋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공공의 사업과 함께 상업 공간들이 들어오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일어나는 결과를 종종 봅니다.

결국, 마을생태는 심하게 교란되고, 마을의 정체성이 되어왔던 주민들이 떠나 남은 것은 마을이 아닌 관광지가 되어 관광에 맞는 상업활동만 발전해 가는 경우들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먹지도 못하는 보기 좋은 떡’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공의 지원들이 지역 주체인 주민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거리 조성을 위해 들어온 특정 상업인들에게만 혜택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마을의 발전은 마을 생태 토양을 파괴하지 않고, 더 건강한 토양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토양이 건강해 지기 위해선 마을이 고유의 상징성을 갖고 그것을 소중하게 유지 발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